

문 37: 신자가 죽을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

답 37: 신자가 죽을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성경적 근거: 누가복음 23:43, 16:23; 빌립보서 1:22-24; 고린도후서 5:6-8; 데살로니가전서 4:14; 로마서 8:23; 요한계시록 14:13, 19:8; 사도행전 7:55-59; 요한복음 5:28-29; 히브리서 12:23; 이사야 57:2

질문 1: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문 2: 신자와 비신자의 죽음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질문 3: 신자가 죽을때에 그의 영혼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질문 4: 비신자가 죽을때에 그의 영혼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질문 5: 신자가 죽을때에 그의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질문 6: 비신자가 죽을때에 그의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질문 7: 부활 할 때에 영과 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문 8: 영과육 둘 중 어느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설명: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죽음이 두려울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과의 이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죽음 후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죽은 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넷째,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갈등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살을 하기도한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극복하는데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철학적이며, 신학적이며, 성경적이며, 현실적인 질문이다. 이 세상의 어떤 질문도 이 질문보다 더 현실적인 질문은 없을 것이다. 미국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두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과 죽음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 결론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현실적이다. 그러나 가끔 죽음을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이다. 또 살인하는 자는 사람을 죽임으로 그의 불만을 만족시켜보려는 끔찍한자들도 있는 것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명의 언약을 피해갈 수 없다. 죄의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과 나뉘게 되는 영적 죽음을 겪어야 했고 또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체험을 해야만 되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비극중에 비극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의 영과 육이 살아있어 영과 살이 부패하지 않았으며 아픔과 슬픔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은 영적,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자의 영은 새롭게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로물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속 사람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새로 거듭난 영혼은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육체속에 거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영과 구습을 따르던 몸은 심한 경쟁과 충돌로 인해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체험하게 된다. 때로는 육의 고집을 꺾지 못하여 영이 아파하며 슬퍼할때도 있으며 한없는 실망속으로 빨려들어갈때도 있다. 이럴때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어 우리로 육의 정욕을 물리치도록 힘을 주신다. 이런 전쟁을 평생 반복하며 치르는 동안 육은 지쳐가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고 몸의 기운이 다하면 영과 죽음은 분리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때에 흠으로 지으셨고 그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죽음이 영과 육을 갈라놓는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혼은 다시 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죄성에서 헤메던 육을 완전하게 회복하여 부활의 몸을 주시되 신자들은 천국에서 비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이다.

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 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나 그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었기에 구원에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역시 세상과 육에게 이리저리 치어 완전한 거룩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는 순간 신자의 영혼은 세상과 육의 완벽한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성경말씀에 기록된대로 꿈에서만 그리워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영화를 분명하게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비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가차없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치 못했던 아픔과 고통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죽을때에 신자와 비신자의 영혼에게 닥치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죽을때에 신자와 비신자의 육에게 닥치는 결과가 같아보일 수도 있다.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인가? 육이 영혼에서 분리되는 것은 같다. 그리고 육이 땅에서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다. 또한 육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아주 같아 보이지 않는가? 과정이 비슷하다고 해서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목적에 있다. 신자의 육은 이미 죽기전에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신자의 육은 이미 죽기전에 지옥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신자의 육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부활되는 것이며 비신자의 육은 이미 지옥에서의 영원형벌을 체험하도록 부활되는 것이다. 죽기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도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기에도 부적당한 것임으로 영광을 위한 부활과 형벌을 위한 부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 부활할때에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된다. 이렇게 재결합 된 사람을 영적육체라고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 된 두개의 교리를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죽음을 일컬어 “영혼이 잠이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있다. 이것은 성경의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죽은 자를 일컬어서 잠자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마치 잠자는 것과 흡사하고 잠자는 것이 마치 죽음과 흡사하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영혼이 잠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죽은 후에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 도달하여 천국에 이르기전에 어느기간을 머문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다. 이 교리 역시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연옥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위해 선행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경우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몇명의 성인으로 칭송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과 육의 소유함을 살펴본다. 영이 소중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이해된다. 그러므로 육의 소중함을 잠시 알아 보자. 우리는 육을 죄와 연결시켜 천하게 또는 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때에 그가 사랑한 것은 그의 영혼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은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여 그로 성육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죽여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을 통해 재 결합하도록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육의 소중함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어도 생각해서도 않된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2 장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32-1. 죽은 후 상태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흠으로 돌아가며 썩지만;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不滅的) 본질을 가지어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그 때 완전히 거룩해져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며, 그들의 몸들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워서, 거기서 고통들과 전적인 어두움 속에 머물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 외에, 성경은 다른 아무 곳도 인정치 않는다.

32-2. 마지막 날의 변화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와 똑같은 몸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것들은 비록 다른 특성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것이다.

32-3. 두 종류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치욕에 이를 것이지만; 의인들의 몸들은 그의 성령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영광에 이를 것이며,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이다.
